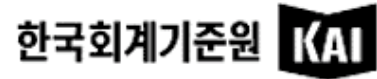


PRESS RELEASE



우편번호 100-753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84-11
연세재단 세브란스빌딩 24층
Tel : 02) 2259-0150-60
Fax : 02) 2259-0170-1

자 료 제 공 : 한국회계기준원

보도 개시일 : 2007. 9. 14 (금) 석간부터

제 목 : 아파트시행사의 회계처리에 관한 국제회계기준 공개초안 공청회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효익)은 2007년 9월 13일 상장건설회사 회계담당자와 회계법인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아파트시행사의 회계처리에 관한 국제회계기준 공개초안 공청회를 열어 향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한 영향과 대비책을 논의하였다.

발표자로 나선 회계기준원 김재호 선임연구원은 “지난 7월 5일에 발표된 국제회계기준 공개초안이 현안대로 확정되어 우리나라 아파트시행사업에 적용될 경우 앞으로는 공사기간 중에 수익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아파트시행사들이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사기간 중에도 수익을 인식하여 왔기 때문에, 발표내용대로라면 주택건설업계의 매출액 회계처리에 과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회계기준원과 관계 당국이 지난 3월 15일에 발표한 로드맵에 따르면, 2011년부터는 국제회계기준이 전면도입되어 모든 상장기업에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국제회계기준 공개초안도 현안대로 확정되면 수 년 내에 우리 상장건설회사에 적용되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건설회사 관계자는 발표자와 달리 국제회계기준 공개초안이 우리나라 아파트시행사업에 적용되더라도 종전과 다름없이 회계처리할 수 있다는 상반된 입장을 피력하여, 이번 공개초안이 나중에 확정되어 적용되더라도 기준에서 제시하는 원칙에 대하여 실무적으로는 다른 해석이 있을 가능성이 비춰졌다.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회계전문가들은 비단 이번 공개초안뿐만 아니라 국제회계기준 전반적으로 세세하고 분명한 규칙(rule) 대신 일반원칙

(principle)만을 제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원칙을 실제로 적용할 때 실무적 해석이 통일되지 않을 염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차제에 국제 회계기준 전면도입과 아울러 국제회계기준이 실제로 기업 간에 일관성 있게 적용 되도록 담보할 수 있는 장치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재검토한 다음 10월 5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최종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